

# 明惠上人の生涯에 나타난 元曉大師의 影響

李 箕 永\*

## I.

明惠上人は 1173年에서 1232년까지 60년에 걸쳐 산 日本佛敎史上의 名僧이다. 元曉大師 入寂後 500年 쯤에 태어나 大師와 그의 벗 義湘의 生涯 및 思想에 心醉했던 한 日本高僧의 傳記가 詳細하고 豊富한 資料<sup>(1)</sup>에 의해 編年의으로 明確히 再構成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明惠上人の 歷史的 事實의 究明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元曉研究者에게는 그의 修道生活에 관한 資料가 不足함으로 因해 不明確했던 몇 가지 事實들을 分明히 알게 해 준다는 點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

## II.

明惠(成弁 후에 高弁)는 그 人品과 그 生活環境 전체에서 무언가 元曉와 義湘의 生涯와 活動에 好感을 가질만한 共通된 要素를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몇 가지 事實들만을 摘記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는 元曉와 義湘이 어떤 幼年時代를 보냈는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우리는 元曉가 早失父母하였으리라는 것을 그가 일찍이 生家를 절로 삼은 데에서 그리고 그 父母에 관한 자세한 記錄이 없는데에서 짐작할 따름이다. 明惠는 8세때 兩親을 잃고 外祖父 밑에서 자란다. 그리고 이 早失父母한 事實은 明惠의 一生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

\*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敎授

(1) 田中久夫, 明惠(吉川弘文館, 人物叢書 昭和 36 初刊), 其他 詳細한 資考資料, 研究文獻은 同書 卷尾의 目錄을 參照.

음을 알 수 있다. 그의 亡父母에 대한 切實한 사랑은 少年 明惠의 佛敎信仰을 남달리 切實하게 했다.

2) 明惠의 父母는 다 比較的 勢力이 있는 地方豪族出身이었다. 明惠는 그 아버지가 當時 源·平 兩氏사이의 武力葛藤의 渦中에서 戰死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當時의 周邊情勢에서 明惠는 權力爭奪의 醜惡相에 이미 진절머리를 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와 類似한 一面은 元曉의 경우에도 있었을 公算이 크다. 흔히 指摘 되듯이 元曉가 六頭品 出身이라는 사실과 그의 出身地方으로 보아서 某種의 葛藤이 그 周邊에 있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 明惠는 그 父母의 熱烈한 佛敎信仰속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京都의 法輪寺에서, 어머니는 六角堂에서 각각 아들 얻기를 祈願했고, 특히 어머니는 觀音經을 一萬번 誦하는 등 至誠을 다 했으며, 그녀는 또 高雄의 藥師佛앞에서 기도하여 아들을 낳거든 부처님께 바치리라는 것도 誓願하였고 막상 아들을 낳자 그를 藥師라고 命名하기까지 하였다. 그가 나중에 高雄을 그 主修道處로 삼는 것은 다 이러한 緣由에서 이다.

이와 類似한 일이 元曉에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元曉를 존경한 後學明惠는 자기의 處地로 머루어 元曉나 義湘의 熱烈한 佛子됨을 欣慕했을 것을 추측키 어렵지 않다.

4) 明惠는 네살때 아버지가 冠帽를 씌우고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장차 大臣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그 容貌가 秀麗해 法師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용모를 醜하게 하리라 생각하고 마루에서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부젓가락으로 얼굴에 상처를 내려고 하다가 저지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明惠는 커서 元曉의 秀麗한 容貌에 好感을 갖고 있었던 듯이 보인다.<sup>(2)</sup>

(2) 明惠는 그 晩年에 光明眞言土沙勸信記 2권을 짓고, 그 머리에 遊心安樂道の 글을 引用하여 元曉에 대해 記述하고 있다. 梅津次郎는 現在 高山寺 所藏 華嚴經 그림 두루마리 元曉·義湘의 그림이 이 때에 成立되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이 그림은 後代人이 그린 元曉의 容貌로서는 現存 最古의 것으로 그 容貌는 매우 秀麗하게 그려져 있다. 角川版「日本繪卷物全集」中“華嚴緣起”參照, 前掲 梅津論文은 美術研究 5~4 參照.

5) 明惠는 매우 Senible 한 爲人이었다. 父母와의 離別, 親戚과의 離別을 슬퍼하는 마음을 釋尊에 대한 追慕의 情으로 바꿔 釋迦를 慈父, 佛眼佛母를 어머니로 모시며 至誠을 다 했다. 그가 “夢之記”를 一生동안 써 내려 갔으며, 꿈을 많이 꾸고 꿈속에서까지도 “學業”을 쌓는 것을 계속했다는 사실에도 元曉와의 一脈相通하는 點이 있는 듯하다. 특히 元曉와 義湘이 渡唐길에 土窟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 이야기를 明惠가 宋高僧傳에서 읽으면서 그는 적지않은 感酪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3)

6) 明惠는 青年時節에 꽤 장난기가 많았던듯, 東大寺에서 빌려 본 孔目章, 五十要問答등 책자의 뒷장에 落書를 하면서 “當山第一之非人成弁”이니 “當寺之瓦礫明惠坊”이니, “此山之厠掃治之夫”니 또는 “日本國第一乞食法師, 今身으로부터 未來際에 이르기까지 길이 僧都僧正이 되지 못할 非人法師成弁”이니 하는 말을 쓰고 있다. 여기에는 僧都僧正등 顯職에 대한 批判的意識이 反映되어 있다. 當時 東大寺에서는 學僧들이 黨派를 지어 서로 싸우고 있었고, 오로지 僧官·僧位를 얻던가 學問的 關心만을 가졌을뿐 宗教的實踐의 意欲과 熱意가 缺如되어 있었던 것이다. (4)

7) 明惠는 入山修道中, 抑制키 어려운 憍心을 누르고 覺悟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오른쪽 귀를 佛眼佛母尊像앞에서 잘라버렸다. 그는 또 釋尊을 慈父로 우러러 받들면서 자기를 진실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여 “如來滅後遺法御愛子”라고 불렀다. 經을 읽으며 부처님께서 說法하시느 場面이나 오면, 그 聽衆들 末席에 자기도 끼어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體驗하기도 한다. 그는 몸소 乞食托鉢을 하기도 했고, 또 그는 두차레씩이나 인도의 佛蹟을 巡禮하려고 企圖했으나 결국은 못가고 만다. 그는 무척 自然을 사랑한다. 인도로 떠나려던 한 섬의 바닷가의 돌을 갖다가 釋迦의 眞影을 對하듯 禮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위의 몇가지 事實들중 元曉의 行跡을 생 각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前記 “華嚴緣起” 속의 꿈꾸는 場面은 다른 場面に 비해 훨씬 더 強調된 印象을 풍긴다.

(4) 元曉의 傳記中에도 元曉가 萬人之敵으로 시기와 결투의 對象이 되었음이 지적되어 있다. 역시 元曉의 周邊에서도 僧職이나 僧位를 놓고 서로 勢力을 다투는 일이 매우 甚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社會的 弊團熱속에서 和靜의 理想은 더욱 강력히 要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高弁 明惠에게서도 비슷한 일이 발견된다.

## III.

明惠의 學問은 두갈래 길을 통해 시작되었다. 密敎와 華嚴을 따로 따로 배워가다가 마침내는 이를 會通하기에 이르렀다. 세상에 이를 明惠의 “嚴密”이라 한다.<sup>(5)</sup>

우리는 明惠가 元曉보다도 500年이나 뒤늦게 태어나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留心한다. 元曉로서는 도저히 接할 수 없었던 後代의 華嚴經註疏나 密敎文獻들을 明惠는 接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明惠가 이 두가지 分野에서 어떠한 文獻들에 接하고 그것을 吸收해 갔던가하는 것을 年譜를 따라 摘記해 보기로 한다.

年表 1. <sup>(6)</sup>

## 華 嚴

- 16세 ○ 上覺 밑에서 出家, 東大寺 戒壇院에서 具足戒 받음.
- 19세 ○ 華嚴十重唯識義 1권 書寫,  
○ 五敎中觀旨事 一校  
○ 華嚴五敎章指事 中, 下 書寫 一校  
○ 華嚴經文義綱目 1권 書寫 一校  
○ 五敎章指事 上 書寫 一校  
○ 大乘起信論義記 上下 一校
- 20세 ○ 探玄記 2 一校  
○ 大乘法界無差別論疏 書寫 一校
- 22세 ○ 探玄記 7, 13, 15, 16 書寫  
○ 華嚴經 內章門等雜孔目 1, 3 書寫 一校  
○ 探玄記 18 書寫 一校

(5) 明惠는 30歲에 華嚴入法界頓證毗盧遮那字輪瑜伽念誦次第 1帖과 善財善知識念誦次第 1帖을 傳授하였다. “이것은 傳法灌頂을 받은 明惠가 密敎의 樣式에 의해 華嚴의 敎理를 體得하려는 意圖 밑에서 試圖한 것으로 身, 口, 意 三密의 相應으로 華嚴의 敎理를 觀하려는 것이다. 이때 부터는 이러한 線에 따라 여러가지 工夫를 試圖하게 되는것 같다.”라고 田中久夫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다(前掲書, p. 64).

密敎와 華嚴의 一致를 뜻한 明惠의 敎學을 華嚴(공미즈)라 稱하는데 대해서는 大正大學 學報 3. 石井敎道, 嚴密의 始祖 高弁 參照.

(6) 이 年表는 主로 前掲 田中久夫의 「明惠」에서 뽑은 임.

- 五十要問答 書寫
- 26세 ○ 探玄記를 講하기 시작.
- 唯心觀行式을 定하고 隨意別願文을 誦함.
- 27세 ○ 探玄記를 講함.
- 29세 ○ 華嚴唯心義를 지음.
- 30세 ○ 渡印을 計劃, 그 이듬해 春日大明神의 託宣으로 中止.
- 33세 ○ 再次 渡印을 計劃 中止.
- 35세 ○ 東大寺 尊勝院 學頭로서 華嚴宗을 일으키라는 院宣이 있음.
- 37세 ○ 吉藏의 法華經義疏를 講함.
- 38세 ○ 金師子章光顯抄 2권을 지음(여기에 花嚴宗沙門高弁이라 함).
- 大疏演義抄 강의를 完了
- 39세 ○ 起信論義記를 講함.
- 40세 ○ 法然의 選擇集을 비판하는 摧邪輪 3권을 지음.
- 41세 ○ 摧邪輪莊嚴記를 지음.
- 43세 ○ 三時三寶禮釋을 지어 行함.
- 圓經經略疏·修證義·梵網經菩薩戒本疏·淨心誠觀 등을 강함.
- 44세 ○ 自行三時禮功德義를 지음.
- 46세 ○ 元曉의 菩薩戒本持犯要記를 강함.

年表 2. 密 教

- 18세 ○ 上覺으로부터 「十八道」(十八契印으로 된 諸尊通用의 供養法)를 받음.
- 19세 ○ 興然으로부터 金剛界와 胎藏界와 護摩를 받음.
- 佛眼尊을 本尊으로 佛眼法을 行함.
- 金剛界次第 書寫 및 校
- 金剛界念誦次第 第2校.
- 21세 ○ 摩恒利神法, 却温神呪經婆羅法事를 興然으로부터 받음.
- 23세 ○ 五秘密 1권, 金剛界抄 1帖 抄記自草

.....  
 .....

- 30세 ○ 密敎의 樣式에 의해 華嚴의 敎理를 體得하려고 試圖: 華嚴入法界頓證毗盧遮那字輪瑜伽念誦次第, 善財善知識念誦次第를 지어 行함. (嚴密)
- 32세 ○ 涅槃會를 열고 舍利講式을 徹夜讀誦.
- 大佛頂法을 修함.

- 大佛頂呪回向文을 書寫.
- 法藏의 密嚴經疏를 읽기 시작.
- 36세 ○ 亡者得脫을 위한 寶樓閣法을 行함.
- 37세 ○ 加持温病法을 抄.
- 寶樓閣法・大佛頂法・佛眼法 등을 行함.
- 佛眼을 書寫.
- 38세 ○ 大寶廣樓閣善住秘密陀羅尼念誦次第를 草함.

.....

.....

.....

- 45세 ○ 六字經呪・五秘密法 등을 弟子들에게 저어 보냄.
- 46세 ○ 大佛頂法을 誦.
- 隨求陀羅尼・寶樓閣法・光明眞言法을 傳授함.

**年表 3. 嚴 密**

- 47세 ○ 督三位局을 위해 供養法을 시작, 理趣三昧 並 金剛界禮懺文과 唯心觀行式을 行함.
- 48세 ○ 法藏의 梵網經菩薩戒本疏를 講함.
- 禪觀에 대한 오랜 모색 끝에 李通玄의 論을 얻어 佛光三昧의 文에 의해 佛光觀을 修하기로 決心. 佛光觀略次第를 지음. 正式名은 華嚴一乘十信位中開廓心境佛佛道同佛光觀門.
- 佛光觀에 대한 教理의 解說書, 明惠의 主著, 華嚴修禪觀照入解脫門義 2권을 지음.
- 그 以後에도 弟子들에게 五秘密尊法・大佛頂護身法・阿字本不生・三聖念誦次第・光明眞言法 등을 수여함.
- 49세 ○ 華嚴信種義 1권을 지음.
- 華嚴佛光三昧觀秘寶藏 2冊을 지음(上卷：佛光觀에 대한 立證文引用, 下卷：佛光三昧에 相應하는 眞言으로서 光明眞言을 지적, 그 手印을 說明, 五秘密瑜伽와 一致함을 주장, 五秘密과 佛光三昧의 一致란 결론을 내림)
- 50세 ○ 不空羂索毗盧遮那大灌頂光明眞言句義釋을 지음.

- 五十五善知識講式 1권 및 祭文을 지음.
- 四十華嚴의 如法書寫.
- 51세 ○ 起信論疏筆削記를 강함.
- 善妙寺를 열다.
- 52세 ○ 假名文 光明眞言功能 1권을 지음.
- 入解脫門義의 강의를 끝냄.
- 53세 ○ 入解脫門 강의
- 五秘密法을 修함.
- 光明眞言法・寶樓閣法 兼修.
- 54세 ○ 水中衆生을 위해 光明眞言 百번 외음. 石室의 壁에 五秘密曼荼羅나 光明眞言을 쓰다.
- 55세 ○ 光明眞言加持土沙義 1권을 지음 (卷頭に 元曉의 遊心安樂道 중 光明眞言功德을 說한 글을 引用).
- 56세 ○ 光明眞言法에 의해 土沙加持를 行하다.
- 光明眞言土沙勸信記를 지음.
- 光明眞言土沙勸信記 2권을 지음.
- 57세 ○ 弥陀極樂世界로의 往生이나, 弥勒兜率天에로의 上生이나를 묻는데 대해 對答.
- 三重寶塔에 安置된 文殊像의 開眼(毗盧遮那・文殊・普賢・觀音・弥勒의 五聖과 五秘密과의 相應)
- 光明眞言句義釋・土沙義 강의
- 58세 ○ 病中, 善財童子의 五十五善知識에 대해 吟味. 열가지 觀點을 同行에 가르침.
- 寶樓閣次第・光明眞言事・加持土沙法 등을 弟子에게 줌.
- 說戒會를 열.
- 大法炬陀羅尼經要文集을 拔萃
- 梵網經記를 강함.
- 病重態, 弥勒像 앞에서 弥勒의 寶號를 唱함.
- 佛法과 利益衆生을 위해 遺書(遺文)를 남김.
- 晝夜不斷히 文殊菩薩의 五字眞言을 誦하게 하고 弥勒像 앞에서 坐禪入觀. 五秘密法을 行하며 懺悔, 入寂.

위의 年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明惠가 45, 46세 쯤까지는 아직도 華嚴과 密敎의 會通의 理解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나, 47세 48세 쯤부터 그는

이 두가지 潮流를 하나로 會通해서 理解하는 自信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年表를 參照하면서 이제 明惠의 佛敎思想 및 信仰이 元曉로부터 어떠한 影響을 어떠한 經路를 거쳐 받았을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sup>(7)</sup>

#### IV.

明惠의 華嚴學은 처음 東大寺의 弁曉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 이 弁曉는 이미 元曉를 私淑해 온 사람으로 보이며, 明惠는 그를 통해 智儼, 法藏, 澄觀 등의 華嚴註疏를 공부해 가다가 晩年에 이르러 李通玄의 著述을 통해 더욱 元曉와 義湘의 眞價를 알게 된 것 같다.

이제 우리는 明惠의 華嚴學 및 信仰이 어떠한 特色을 더우고 있는가를 概觀하면서 元曉와의 關係性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明惠의 華嚴과의 關聯은 그가 16세 때 華嚴本山 東大寺 戒壇院에서 具足戒를 받은 것에서 비롯된다.

2) 19세에서 23세까지 사이에 明惠는 華嚴研究入門書라 할 수 있는 智儼의 孔目章, 五十要問答, 法藏의 探玄記, 五教章 등을 東大寺 尊勝院에서 빌려다 書寫 校正하는 일에 注力하고 있다.

3) 그러다가 26세 때에는 探玄記를 講하기 시작하며, 그후 明惠의 華嚴理解는 점차 深化되고 자기나름대로의 信仰이 加味된 解釋들이 試圖된다. 26세 때에 定한 唯心觀行式과 隨意別願文, 29세 때에 지은 華嚴唯心義, 38세 때의 金師子章光顯抄 2권, 43세 때의 三時三寶禮釋 및 44세 때의 自行三時禮功德義(위의 禮釋의 解說書) 등은 明惠가 華嚴經을 단순히 敎學的知識으로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實際 修行의 길잡이로서 信仰의으로 受容하

(7) 年表 1, 2는 各各 明惠 46세까지의 華嚴經 공부에 관한 狀況 및 密敎 공부에 관한 狀況을 따로 따로 摘記한 것이다. 年表 3은 47세 以後 58세 入寂까지 華嚴과 密敎를 會通의으로 理解 修行하는 過程을 年度別, 事件別로 摘記한 것이다.

고 있음을 分明히 보여주는 文獻들이다.

4) 明惠는 이렇게 華嚴을 理解하는 過程에 法藏의 起信論義記, 梵網菩薩戒本疏, 吉藏의 法華經義疏 및 元曉의 菩薩戒本持犯要記 등을 공부하고 이를 講義하기도 한다. 그밖에 李通玄의 華嚴論, 元曉의 遊心安樂道 등을 보고 至大한 影響을 받는다. 明惠가 이 두 사람, 즉 우리 新羅의 元曉의 著述과 元曉로부터 莫大한 思想的 影響을 입고, 따라서 中國華嚴思想家들 중에서는 가장 그 主張이 元曉의 主張에 忠實한 李通玄의 著述<sup>(8)</sup>을 읽게 되는 것은 前述한 다른 사람들 著述보다는 훨씬 늦게, 48세 以後 明惠 晩年の 일이다. 이는 注目을 要한다. 明惠가 李通玄의 論을 얻어, 여기서 많은 共感을 얻은 것은 48세때의 일이고, 한편 그가 遊心安樂道 卷頭に 실린 光明眞言功德을 찬양하는 元曉의 글을 引用하면서 光明眞言加持土沙義 1권을 지은 것은 明惠가 55세때의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明惠가 처음에는 華嚴을 배울 때 法藏 등의 一般的 華嚴入門書만을 보다가 48세를 前後하는 時期에 와서야 元曉라는 사람의 人品과 學識을 알고 그의 思想에 傾倒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중에 다시 言及할 터이지만, 그가 善財童子의 五十五善知識을 崇尚 敬慕하며 禮拜한 사실이라던가, 弥勒信仰을 弥陀信仰보다도 더 重視하는 信念을 그 晩年に 披瀝하고 있는 사실 등은 역시 이것들이 元曉에게 있어서도 親熱한 重要的 일이었음에 비추어 善妙寺를 짓고, 善妙善神을 奉祀하며, 또 宋高僧傳에 나오는 元曉와 義湘의 傳記를 그림 두루마리(繪卷)로 그리게 한 사실과 아울러, 晩年の 明惠에게 있어서 元曉 그리고 義湘은 가장 尊貴한 스승으로 모셔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V.

그러면 明惠의 華嚴理解의 特色은 무엇이고 그것은 元曉와 어떤 聯關을

(8) 抽稿, 敎利史上에서 본 元曉의 位置(李瑄根 博士 古稀記念 韓國學論叢 所載)

갖는다고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좀더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자.

### 1) 華嚴을 공부하는 明惠의 態度

앞서 言及했듯이 明惠는 매우 感受性이 강한 性格의 사람이었다. 그 社會와 家庭環境이 이를 助長한 一面도 있다. 이러한 性格을 가진 明惠는 經句나 敎說의 하나하나를 客觀的으로 冷靜하게 批判的 또는 象徴的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매우 感動的으로 主體的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곧 그 context 속에 沒入하는 信仰的 姿勢를 보여 왔다.

예를 들면 23세때 그는 五敎章의 十玄緣起를 說한 部分중에 「無盡」이란 말이 열번이나 계속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꿈속에 一種의 神秘的 體驗을 맛본다. 「無盡」이란 字形이 漢字도 아니고 梵字도 아니며, 花鬘索이 十重으로 開敷된 것같으며, 그 第一重의 花葉이 아주 微細하고 그것이 十重으로 겹쳐 있었다. 이 글자가 이렇게 不可思議한 것은 緣起의 法이 法界를 망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는 그 글자를 다 삼켜버렸다. 나중에 깨어서 생각하기를 이는 十玄緣起의 뜻을 곧 理解하게 되는 瑞夢이라 여기며, 자기가 居處하는 房을 十無盡院이라고 부르기로 한다.<sup>(9)</sup>

그는 또 華嚴經十地品과 心地觀經 등을 持經으로 삼았다. 이 經들의 첫머리에는 佛의 說法을 듣는 大衆들의 모임의 場面이 나오는데, 明惠는 그때마다 자기가 그 會衆속에 끼어 있다고 느낀다. 十地品을 읽고 있을 때, 그는 如來께서 他化自在天宮의 摩尼寶藏殿上에서 說法하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 보며,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씻고 本尊을 보며 더욱 목청을 가다듬어 經을 읽고 있으니 갑자기 눈위에 閃光이 빛났다. 눈을 들어 虛空을 보니 七八尺앞에 文殊師利보살이 金色의 몸으로 金色의 獅子를 탄 모습이 나타났다. 24세때의 일이다.<sup>(10)</sup>

또 한번은 이런 꿈을 꾸었다. 큰 바닷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바다를 向해 큰 돌 52개가 五十二位를 나타내듯이 配列되어 있다. 많은

(9) 田中久夫, 明惠 p. 31, 行狀에 引用된 六十華嚴第6卷 奧書

(10) 田中久夫, 前掲書 p. 39.

사람들이 初信의 돌에 群集해 있었다. 자기는 혼자서 그 돌 하나하나를 차례로 五十二位의 돌을 전부 다 거쳐 먼 곳에 있는 妙覺의 돌에 이르렀다. 그 곳에서 다시 처음과 같이 初信의 돌로 되돌아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겐 海中의 五十二位의 功能을 說했다는 것이다.<sup>(11)</sup>

이 꿈이야기는 明惠가 49세쯤에 썼으리라고 생각되는 華嚴佛光三昧觀冥感傳 1冊중에 다른 꿈이야기와 함께 실린 것으로 어느때 일인지는 不分明하나, 그 자신이 華嚴佛光三昧의 冥感이라고 생각하여 이 冥感傳안에 收錄한 것인 만큼 그의 華嚴研究가 얼마나 生活에 密着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 2) 華嚴에 立脚한 觀行

明惠가 26세때에(大方廣佛華嚴經中) 唯心觀行式 1권<sup>(12)</sup>을 지은 것은 그가 一生동안 堅持 發展시킨 修行儀軌의 基本을 構築한 것이 된다.

唯心觀行式의 中心內容은 첫째 心·佛·衆生의 三無差別을 觀하는 것과 둘째 普賢菩薩의 行頌을 念하는 것 두가지로 되어 있고, 같은 時機에 단 隨意別願文과 함께 每日 三時에 行하는 觀行儀式이었다. 이것이 明惠 43세때에는 三時三寶禮釋으로 바뀌고, 48세때에는 華嚴修禪觀照入解脫門義(2권)로 49세때에는 華嚴佛光三昧觀秘寶藏(2冊)으로 發展된다. 50세때부터 表面化하는 光明眞言法은 그의 華嚴觀이 보다 密敎쪽으로 기울어진 表示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 43세때의 三時三寶禮釋은 과연 어떤 內容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시 入解脫門義에 나타난 이른바 佛光觀(佛光三昧)의 內容은 어떤 것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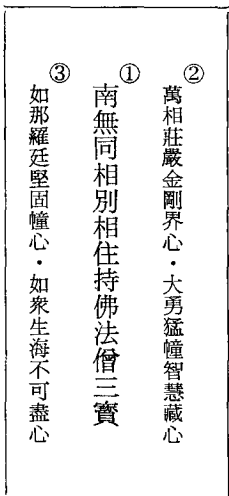
(11) 田中久夫, 前掲書 p. 40.

(12) 그 骨格은 다음과 같다.

先普禮, 先入道場 五體投地 三度禮拜, (取香呂或合掌)  
 「南無十分虛空法界 一一微塵 毛端刹土 盡因陀羅網 微細世界 華嚴海會, 一切三寶」 次奉請  
 瞻仰尊像 起大歡喜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白言(金二打取香呂)  
 「歸命大智海 十身盧舍那 充滿諸法界  
 無上大慈尊 方廣離垢法 圓滿解脫輪  
 普賢文殊等 海會大菩薩 我在具縛地  
 佛心大法門 唯願見加哀 令增念智力  
 修此秘奧藏 愆益於自他 願令法久住  
 傳燈報佛恩」 唯願我本師 華嚴教主 釋迦牟尼如來 大慈大悲 受我奉請 降臨 大方廣……

가를 이야기하고 이것들과 元曉의 關聯性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三時三寶禮釋은 아래 그림과 같은 쪽자를 自筆로 써서 단틀고, 그 앞에



서 이 글을 읽으며 三時에 세번씩 禮拜하는 儀式이다. 먼저 ① 南無 云云하고 三寶에 歸命하는 뜻을 表하고 ②와 ③의 네가지 菩提心을 말한 뒤, 이 모든 菩提心을 「生生世世皆悉具足」이라 하고 五體投地하며 禮拜하기를 하루 三時에 세번씩 하는 것이다. ②③의 四種菩提心은 八十華嚴 제27권 十廻向品에 있는 二十種菩提心中 네가지만 고른 것이다. 南無同相別相住持佛法僧三寶라 한 것은 華嚴의 六相道理를 強하게 念頭に 두고 있는 明惠의 基本的 立場을 分明히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三寶나 菩提心을 文字로 써서 本尊으로 삼고 拜禮하는 것은 密敎의 생각이요 관습이다. 따라서 明惠의 이 三時三

寶禮釋은 華嚴의 敎理를 존중 의거하면서 그것을 密敎의 樣式으로 實修하려는 意圖를 담은 것이라 하겠다. 明惠는 스스로 그 功德을 自行三時禮功德義(44세배)에 피력했는데, 그 안에서 三寶에 대한 禮拜는 普賢菩薩의 十大願을 修行하는 것이며, 禮拜는 我慢을 除去하고 成佛하는 妙道라고 말하고 있다.<sup>(14)</sup>

明惠가 密敎의 樣式에 의해 華嚴의 敎理를 體得하려고 試圖한 先例는 30세배 華嚴入法界頓證毗盧遮那字輪瑜伽念誦次第와 善財善知識念誦次第를 지어 行한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 時期에 明惠에게 何等의 疑意가 없는 觀法上의 會通의 理解가 이루어 지지는 못하고 있었고, 그는 如前히 華嚴과 密敎 이 두 가지 敎說을 綜合 會通的으로 理解하도록 保障하는 先師의 敎訓을 接하지 못하고 彷徨 模索中이었다고 생각이 된

(13) 圖内の 숫자는 筆者의 것.

(14) 田中久夫, 前掲書 p. 110.

다. 明惠研究家에 의하면 明惠는 38세때에 李通玄의 華嚴論을 얻어 그때부터 佛光觀을 시작했다고 하는데,<sup>(15)</sup> 그가 李通玄의 論에서 發見한 新鮮味는 다름이 아니라 法藏의 註疏가 學問的인 面에 치우쳐 不滿을 느끼던 중 李通玄의 글이 매우 實踐的인 面이 진했던 事實에 있었다고 한다. 年表를 보면 38세부터 45세경까지 明惠는 密敎關係의 일에 큰 關心을 表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明惠는 오히려 金師子章光顯抄를 내고 大疏강의 起信論강의, 圓覺經강의 摧邪輪의 執筆(法然의 淨土念佛信仰이 菩提心を 無視함을 攻駁)등 一聯의 多樣한 探究에 從事하다가 三時三寶禮釋을 지어 觀行 實修上一段의 進歩를 보인다.

明惠가 38세때에 李通玄의 論을 보고 그때부터 佛光觀을 시작했다는 前記 研究家의 說은 잘못된 記述이고, 사실 佛光觀, 또는 佛光三昧, 佛光法界觀行이라고 불리는 觀法이 定立되는 것은 明惠 48세頃の 일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앞서 明惠는 46세때에 元曉의 菩薩戒本持犯要記를 講하고 있다. 이 持犯要記는 當時의 修行者들의 잘못된 修行, 僞善의 態度를 신랄하게 批判한 修行의 正道를 밝히는 現實的 實踐的 敎訓을 담은 것이어서<sup>(16)</sup> 明惠에게 큰 感銘을 준 것 같고, 이것이 契機가 되어 明惠一代의 主著 華嚴修禪觀照入解脫門義 2권이 나오고 그나름대로의 華嚴·密敎 會通이 成就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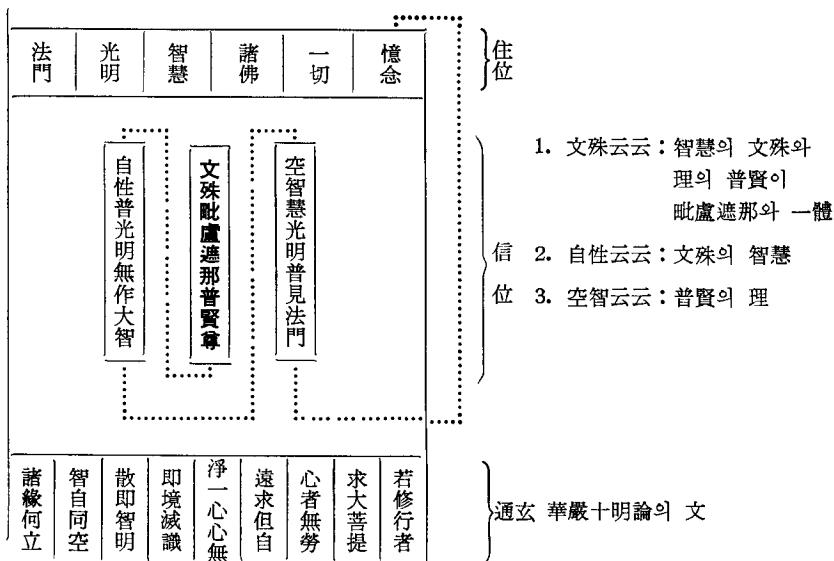
위의 入解脫門義는 佛光觀에 대한 敎理를 解說한 것으로 그 內容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一乘發心을 勸하는 내용으로 十信·十住·十行·十廻向·十地の 五位를 설명한다. 둘째는 光明覺品の 佛光은 原因인 凡夫의 信과 그 結果인 佛가 因果同體의 眞임을 밝히는 것으로 凡夫가 信解하기만 하면 佛果에 이를 수 있음을 說한 것이고, 셋째는 觀行에 쓰이는 圓像의 解說이다. 결국 明惠는 華嚴의 三聖, 毗盧遮那란 果位의 佛과 文殊·普賢 이두 因位의 菩薩은 하나임을 表示하고 이에 대한

(15) 田中久夫, 前掲書 p.122.

(16) 拙稿, 元曉의 菩薩戒觀(拙著, 韓國佛敎研究).

信은 곧 初發心住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表示하고, 修行者가 大菩提를 求하거든 쓸데없이 멀리 求하지 말고 그 自身의 一心을 맑게 해야 한다고 한 通玄長者 華嚴十明論에 있는 一句節을 摘記한다. 사실 이 教訓은 元曉의 뜻을 通玄長者가 계승한 것으로 直接 文章은 通玄에게서 받았지만 뜻은 元曉에 가 닿고 있다 하겠다.

그 圖像은 다음과 같다.<sup>(17)</sup>



### 3) 明惠 嚴密의 完成

一般의으로 密敎는 華嚴經의 思想을 根本으로 하여 이를 印度의 民族信仰의 呪禮를 事相으로 하여 佛敎의으로 解釋한 것으로서 表現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것이 印度에서 密敎가 發生할 때의 狀況이다

明惠는 華嚴佛光三昧觀秘寶藏 2권을 49세에 賀茂禪院住房에서 지었는데, 이로써 實質의으로 明惠의 獨特한 嚴密思想은 確實히 定著한다. 上卷에서는 佛光觀에 대한 證據할만한 文章을 들어 詳論하고, 下卷에서는 佛光

(17) 田中久夫, 前掲書 p. 128~130.

三昧에 相應하는 眞言을 光明眞言이라고 설명하고, 이 眞言을 의을 때 사용하는 手印을 설명, 다시 이는 密敎의 行法으로 말하면 字輪觀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華嚴의 五聖(文殊·普賢·觀音·彌勒·毗盧遮那)과 五秘密瑜伽의 五聖(欲·觸·愛·慢의 四菩薩과 金剛薩埵)은 一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華嚴의 相即相入, 圓融具德, 因陀羅網境界의 뜻이 크게 眞言瑜伽의 뜻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8)</sup>

우리는 元曉가 여기서 말하는 密敎의 五秘密瑜伽 같은 것을 알 수 없는 時代에 산 사람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明惠의 이와같은 嚴密一致의 思想定立의 事實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自身이 看過하고 있든 어떤 事實을 元曉의 行狀에서 새롭게 發見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一種의 衝擊을 받게 됨을 告白한다. 즉 우리가 보다 더 면밀히 檢討해 보면 元曉의 論說들 속에서 이러한 嚴密一致의 思惟方式의 痕跡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일찌기 五台山信仰 등 우리 新羅에서의 華嚴的 佛國土思想에서 法身佛을 中心으로 한 四方佛(실은 四方菩薩)의 內容을 檢討해 본 일이 있는데,<sup>(19)</sup> 그때에 우리 新羅人들의 四方佛은 대체로 文殊·普賢·觀音·彌勒으로 列擧되는 傾向이 있다고 指摘했었다. 이것을 明惠는 分明히 華嚴의 五聖, 華嚴의 三聖에서 分化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실제상 明惠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의 傳統的 見解로서 新羅에 그 根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明惠의 華嚴研究 및 信仰의 足跡에서 元曉와 關聯해 생각해야 할 것은 明惠가 觀行의 式을 만들어 不斷하고도 多樣하게 每日每日의 修行을 쌓아간 事實에서 사실은 元曉의 日常修行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던 중 그 傾向을 접칠 수 있는 하나의 例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좋다는 것이다. 우리는 最近에 義相和尚一乘發願文 二

(18) 田中久夫, 前掲書 p.135~136.

(19) 拙稿, 七, 八世紀 韓國 및 日本에서의 佛國土思想(韓日交涉史研究, 乙酉文化社 刊)

十句 百四十字를 發見했는데, (20) 그 內容은 明惠의 것처럼 切切한 바가 있다. 資料, 특히 傳記的 資料가 극히 드문 古代의 元曉·義湘 등의 修行 信仰生活의 面貌를 500年後의 明惠의 傳記에서 그려볼 때 그것이 全的으로 잘못이라고 단 말 할 수는 없는 肯定의 一面이 있을 것 같다.

## VI.

### 彌勒信仰의 重視

明惠 57세 바로 入寂 1年前, 어떤 僧이 明惠를 찾아와 「지금까지 나는 阿彌陀佛의 極樂世界로의 往生을 뜻해 왔는데, 스승께서는 彌勒의 兜率天에 上生하는 것을 願하고 계시니 스승을 따라 兜率上生을 願할까 하는데 어떨것느냐」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明惠는 華嚴에서는 降彌陀佛을 釋迦와 同體로 보고, 그 分身의 佛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遊心安樂道の 글을 引用, 各各 行者는 그 屬하는 바가 있으니 그것에 따라 速히 道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彌陀와 彌勒, 極樂과 兜率의 優劣따위를 따지며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한다. (21)

明惠의 彌勒信仰은 두칠했으며 그는 臨終前 彌勒像앞에서 彌勒의 寶號를 스스로 唱했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唱하게 하였다.

이는 元曉의 信仰과 完全히 一致하는 것이며, 明惠는 이를 元曉에게서 배운 것이다. (22)

(20) 最近 張忠植 教授가 發見한 義相和尚一乘發願文은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되어 있다.

惟願世生生處 三種世間爲三業  
 化作無量供養具 充滿十方諸世界  
 頂禮供養諸三寶 及施六道一切類  
 如一念應作佛事 一切念應亦如是  
 諸惡一斷一切斷 諸善一成一切成  
 值遇塵數善知識 聽受法門無厭足  
 如善知識發大心 我及衆生無不發  
 如善知識修大行 我及衆生無不修  
 具足廣大普賢行 往生華藏蓮花界  
 親見毗盧遮那佛 自他一時成佛道

(21) 眞聞集 末, 田中, 前掲書 p. 162.

(22) 拙稿, 元曉의 彌勒信仰(拙著, 韓國佛敎研究, 1982).

## Ⅶ.

### 光明眞言加持土沙義 1卷의 著述

明惠 55세때에 그는 이 책을 지었다. 앞서 50세때에 光明眞言을 普及하는 第一作으로서 「不空縹索毗盧遮那大灌頂光明眞言句義釋」을 지어 光明眞言의 字句의 意味를 解釋한 일이 있는 明惠는 이 두번째 책을 통해 또 하나 새로운 密敎의 儀式을 導入한다. 田中久夫같은 이는 이 책을 지을때 明惠는 部分的으로만 元曉의 文句를 引用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sup>(23)</sup> 이 새로운 儀式에 대한 아이디어는 全的으로 遊心安樂道 末尾에 있는 說明에 依存하고 있다. 지금은 遊心安樂道가 그냥 그대로 元曉의 著述이 아닐 可能性이 漸高되고 있는 形便이지만, 明惠의 當時에는 그런 疑心을 갖는 사람이 없을 때이라 明惠는 感之得之하며 좋아했을 公算이 크다.

## Ⅷ.

### 「摧邪輪」의 內容과 관련하여

明惠 40세때, 正月에 日本 淨土宗의 開祖 法然이 죽고 그 著 選擇集이 九月에 出版되었다. 明惠는 그것을 읽고 法然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點에서 잘못을 저질렀음을 批判하는 책을 낸다. 이것이 摧邪輪이다. 즉 明惠가 指摘하는 法然의 잘못은 1) 菩提心이 全的으로 必要없는 것이라 하며, 一向專修의 稱名念佛만이 足하다는 주장, 2) 念佛以外的 佛敎, 즉 聖道門을 群賊으로 몰아 非難하고 있는 點이다. 明惠는 「나는 天性으로서 잘못된 일을 보면 못견뎌다. 摧邪輪의 制作도 그 마음대로이다」라고 썼고 그는 補完篇으로 摧邪輪莊嚴記라는 또다른 한권도 썼다. 그는 이 안에서 法然

(23) 田中久夫, 前掲書 p. 160.

上人이 「佛法을 破滅하는 大邪見을 품고 獅子身中之虫이 獅子의 살을 먹듯이 外正內邪는 眞實心으로만 고칠 수 있을뿐 往生의 能障이 되기 때문에」非難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후 親鸞은 明惠의 批判을 받은 위의 두가지 잘못을 是正하는 글을 썼다.

우리는 念佛稱名에 관한 元曉의 議論을 明惠가 遊心安樂道 기타 다른 著述에서 읽고 배웠던 것으로 생각한다. 明惠의 主張은 元曉의 理論에 全의으로 근거하고 있다. 또 위의 引用文中 「獅子身中之虫」이나 「外正內邪」 등의 用語表現은 菩薩戒本持犯要記의 元曉의 用語 그대로이다.<sup>(24)</sup>

## IX.

### 善財童子로 自處하는 明惠

明惠는 일찌기 30세때에 善財善知識念誦次第를 지어 行하기 시작한 일이 있다. 그는 50세때에 이른바 善知識供이라는 것을 시작한다. 그때 그 儀式을 정한 것이 五十五善知識講式 1권과 祭文이다. 이는 華嚴經入法界品の 善財童子가 만나는 善知識을 供養하는 作法이다. 그는 入寂하는 해, 즉 58세때 善財童子의 五十五善知識에 대해 吟味를 加해 열가지 觀點을 생각해 내어 同行들에게 가르친다. 그는 꿈속에 五十五善知識의 木像을 一一히 拜禮하면서 마치 自己가 善財童子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은 일도 述懷하고 있다.

필자는 善財童子와 彌勒菩薩과의 特別한 關係에 留意하면서, 明惠의 이러한 善財童子善知識 禮拜作法과 兜率上生信仰과는 깊이 關聯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 왔고, 新羅의 花郎들이 彌勒信仰을 가졌던 것은 그 花郎들이 善財童子라고 自處한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바 있다. 필자는 明惠와 善財童子의 위와같은 관계가 確認됨에 따라, 우리는 元曉를 포함한 신라 青年花郎들이 善財童子란 젊은 求道者를 모델로 삼은

(24) 元曉의 菩薩戒觀(拙著, 韓國佛教研究, 1982)

時期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X.

### 明惠의 自然觀

明惠는 山과 바다, 나무와 돌 등 自然의 모든 것을 華嚴法界緣起의 教訓을 따라 그 교훈을 體驗하듯이 사랑하고, 그 自然과 一體가 되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때 明惠는 百餘名の 同行과 海中의 한 섬에 도달했다. 西海속에는 멀리 안개에 가려진 한 섬이 있었다. 그 섬을 天竺이라 여기고 「南無五天諸國處處遺跡」이라唱하며, 天竺國을 想像한다. 그는 거기 海邊에서 가져온 돌 하나에 蘇婆卒堵河의 이름을 따, 蘇婆石이라고命名하고 항상 몸가까히 책상위에 놓고 사랑했다고 한다. 그는 나중에 이 섬에 片紙를 써 마치 그리운 친구를 대하듯 이야기 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 明惠에게는 山이 가장 適合한 修道處로 생각되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은 그가 깊이 自然을 사랑한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도 신라의 花郎들의 山岳崇拜, 自然尊重의 氣風과 一脈相通하는 點이 發見된다.